

청소년활동 관점에서 바라 본 주5일수업제

- ▶ 일시: 2012년 4월 13일(금) 10:30 - 12:00
- ▶ 장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9층 회의실

‘주5일수업제에 따른 청소년활동 활성화방안 연구’ 콜로키움

■ 연구진

맹영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광호(경기대학교 교수)

이진원(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창의활동지원실장)

오민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조원)

■ 발표자

김혁진(청소년지원네트워크 연구위원)

■ 일정표

- | | |
|--------------------------------|---|
| <input type="checkbox"/> 개 회 | 10:30 - 10:40
맹영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 <input type="checkbox"/> 주제 발표 | 10:40 - 11:20
청소년활동 관점에서 바라본 주5일수업제
발표자 김혁진(청소년지원네트워크 연구위원) |
| <input type="checkbox"/> 질의응답 | 11:20 - 11:50 |
| <input type="checkbox"/> 폐 회 | 11:50 - 12:00
맹영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목 차

주제 발표

- I. 주5일수업제 접근의 논점: 주5일과 주2일의 구조 2
- II. 주5일수업제와 학교교육의 변화 4
- III. 기본방향 : 청소년의식과 생활구조에 따른 접근 15
- IV. 청소년활동에서 주5일수업제에 대한 대응방안 22
- V. 맺음말 : 주2일 주말 중심의 청소년활동 체제 만들기 27

질의응답

청소년활동 활성화와 주5일수업제

주제발표



**청소년활동 관점에서 바라 본
주5일수업제**

김혁진

(청소년지원네트워크 연구위원)

제 1 장

주5일수업제 접근의 논점 : 주5일과 주2일의 구조

주5일수업제는 1998년도에 제도 도입을 위한 관련 법령의 개정(초중등교육법상의 법정 수업일수의 감축 운영 관련 규정) 이후 여러 단계를 거쳐 2012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되었다. 2011년 6월 교육과학기술부의 시행계획 발표 이후 기대와 우려 속에 2012년 1학기부터 본격적인 주5일수업제가 실시되고 있다. 2006년부터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월 2회 주5일수업제가 적용되기 전과 비교해서 현재 정책적 관점이나 연구의 측면에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미 월 2회의 운영과정을 거치면서 학교, 가정과 사회에서 어느 정도 익숙해졌고, 2006년 이후 사회 전반으로 주5일근무제가 확대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나 여전히 주5일수업제로 인한 취약계층의 보호문제 등이 제기되었고 학교에 대한 교육적 책임과 요구는 계속되었다. 현재 주5일수업제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교육과학기술부를 중심으로 학교를 기반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저소득 또는 나홀로 학생 대상의 교육활동 지원사업에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정책적 측면에서 다양한 부처에서 시행하는 주5일수업제 지원 사업도 학교를 통한 시행이나 홍보-연계의 관점에서 진행되는 측면이 강하다. 이로 인해 학교에서의 토요일 프로그램 참여도가 주5일수업제의 정착의 기준으로 여겨지고 있다.¹⁾ 토요일방과후학교, 예술강사 파견 사업 및 스포츠 강사 지원에 의한 토요일 프로그램, 학교를 통한 지역사회 문화공간-프로그램 홍보 등 학교중심의 운영체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현재의 상황을 종합하면 주5일수업제에 대한 정책 추진체제 및 지원체제 모두 학교를 중심으로 체계화되고 학교와 연계를 전제로 하고 있다.

주5일근무제의 연속선상에서 주5일수업제를 본다면 직장인들이 주5일간 근무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학생들로 학교에서 주5일간 수업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러나 주5일근무제나 주5일수업제는 일주일

1) 교육과학기술부의 2012년 3월 25일자 보도자료에 따르면 4주차 토요일에 전체 학생의 20%인 1,399,641명이 학교의 토요일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학교 토요일 프로그램 운영이 정착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하였습니다
-참여율 추이 : 2012년 3월 동안 1주차 8.8% → 2주차 13.4% → 3주차 18.4% → 4주차 20%
-프로그램별 참가 인원 : 토요일돌봄교실, 41,730명, 토요일방과후학교 1,020,425명, 토요일스포츠데이 274,822명, 토요일문화예술동아리 62,664명

7일간의 기간 중 6+1의 체제를 5+2의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직장인 개인의 차원에서 주5일근무제는 2일간은 직장에서 벗어나 개인의 시간을 갖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직장에서 5일근무제를 위해 별도의 업무나 여가활동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개인의 임의적인 시간이어야 그 의미가 살아날 것이다. 여가문화의 확대나 관광산업의 활성화와 같은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효과 분석은 어쩌면 그 결과이지 전제 조건이 아닐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학생 개인의 차원에서 주5일수업제는 학교에서 공부하지 않는 2일간의 임의적인 휴일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주5일수업제는 주2일간은 학생이 개인적으로 자신의 시간에 대한 활용 방법을 결정하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함을 전제로 한다. 학교에서 연장된 시간을 보내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학교 밖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활동 시간을 만들고 참여하는 것이 주5일수업제의 의미를 살리는 것이다. 적어도 토요일의 학교는 주말 시간의 활용을 위한 다양한 지원 체제를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이지 모든 책임을 져야하는 주체는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논점을 전제로 할 때 청소년정책의 입장에서는 주5일수업제를 학교중심이 아닌 청소년활동의 관점에서 접근하기 위한 방향과 방안의 모색이 요구된다. 2009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실제로는) 특별활동에서 명칭이 변경된 ‘창의적 체험활동’의 경우에는 학교의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학교중심의 연계와 접근이 의미가 있었다. 그러나 창의적 체험활동에 경도된 청소년활동이 과연 지역사회에서 독자적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청소년활동에서 주5일수업제에 대한 접근 방식이 학교 중심으로만 진행이 될 때 사회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청소년활동이 별도의 영역으로 독자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필요한 상황이다.

주2일간의 기간동안 청소년들은 가정과 지역사회 또는 학교에서 자신이 원하는 활동을 선택하고 자신만의 시간을 만들어갈 수 있어야 주5일수업제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 학교에서 모든 것을 조정해 주는 것이 아니며 학교가 모든 책임을 질 필요도 없다. 학교 입장에서도 학교에서 연결을 하지 않아도 지역에 좋은 기관들이 많고 우수하고 흥미있는 프로그램이 넘쳐나서 자체적으로 주2일을 위한 활동의 기회가 제공될 때 주5일의 수업에 집중할 수가 있을 것이다. 청소년활동의 관점에서 주5일수업제는 학교와의 연계 여부를 떠나 청소년들이 자발적이고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는 주2일의 활동 지원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과업이 된다. 학교교육 입장에서 학교에서의 주5일수업과 가정 및 지역사회에서의 2일의 학습을 구분하는 것은 주7일간 조직적인 교육이 학생들에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주2일은 개인의 자발적이고 임의적인 시간이되 그 결과는 교육적으로 학습의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고, 학교에서 직접적으로 모든 책임을 질 수 없음은 의미하는 것이다.

제 2 장

주5일수업제와 학교교육의 변화

1. 추진경과와 시행계획

학교의 주5일수업제 추진경과는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다. 1998년 수업일수에 대한 법령 개정 이후 연구학교, 월 1회 실시, 월 2회 실시, 전면실시를 위한 시범학교 운영을 거쳐 2012년에 전면적으로 도입되었다. 단계적인 준비와 시범운영 과정을 거치면서 주5일수업제의 시행에 대한 법적 지원 체계(수업일수의 조정 등)나 교육 지원체제를 구축하게 되었다. 또한 사회적으로도 주5일수업제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함으로써 전면적인 시행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였다. 학부모 입장에서도 월 2회의 운영을 통해 전면적인 시행의 충격을 완화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주5일수업제의 시행을 위한 제도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전제는 수업일수에 대한 법적 기준과 교육과정에 의한 수업시수의 조정이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고등학교의 경우 총 6단위의 수업시수가 감축되었다. 법정 수업일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5조에 따르는데 1998년 개정을 통해 220일의 수업일수를 10% 범위에서 감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후 2012년 전면적인 시행에 앞서 학교의 주5일수업제 운영형태에 따라 법정 수업일수를 정할 수 있도록 2011년 10월 동법 시행령 제45조를 개정하였다. 이에 따른 수업일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주5일 수업을 실시하지 않는 학교의 경우 : 매 학년 220일 이상
- 주5일 수업을 월 2회 실시하는 학교 경우 : 매 학년 205일 이상
- 주5일 수업을 전면 실시하는 학교의 경우 : 매 학년 190일 이상

표 1 주5일수업제의 시행 과정

구 분	주 요 내 용
199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5일수업제 운영 대비 관련 법령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해진 수업일수의 10% 범위 내에서 감축 가능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45조) -법정 수업일수 220일 중 수업일수 감축시 198일까지 운영 가능
20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학교 30교 운영(교육부, 시도교육청): 초23교, 중5교, 고1교, 기타 1교
20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학교 83교 운영(교육부, 시도교육청): 초57교, 중16교, 고8교, 기타 2교
20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학교 136개교 운영(교육부, 시도교육청): 초82교, 중41교, 고11교, 기타2교 우선 시행학교 도입(26교) : 초20교, 중4교, 고1교, 기타1교
20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월1회 주5일수업제 우선 시행학교(전국 10%내외) 선정 실시
20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월1회 모든 학교 주5일수업제 실시 향후 확대 실시에 대비하여 2005년도에는 시도교육청별로 초·중·고 각 3% 이내의 학교를 월2회 우선시행학교로 선정·운영
20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월2회 모든 학교 주5일수업제 실시
2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7 개정 교육과정 고시 (월 2회 실시 고려-수업일수 205일, 초3~고3 주당 1시간씩 수업시수 감축)
2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9 개정 교육과정 고시 (전면 시행을 고려-고교 총 이수단위 6단위 감축)
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 주5일수업제 전면실시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학교 주5일수업제 전면실시를 위한 법령 개정 (초·중등교육법시행령 2011.10.26) 학교 주5일수업제 전면시행을 위한 시범학교 운영
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국적으로 전면적인 주5일수업제의 실시

자료: 교육인적자원부(2006). 2006학년도 주5일수업제 시행 계획-교총 보도자료(2011.6.14) 를 수정함

주5일수업제의 추진을 위해 수립된 시행계획(2011.6)에서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가정·지역사회의 교육기능 강화로 창의적인 미래 인재 육성”이라는 비전과 가정-학교-지역사회-유관부처의 연계 및 총체적 협력을 추진전략으로 설정하였다. 시행계획의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²⁾

2) 교육과학기술부(2011.6), 주5일수업제 시행계획.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정과(2012), 정책자료 “주5일수업제의 정책 방향 미 및 과제” 자료 참조.

1.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 수업일수 조정
 - 교육과정 수업시수 조정
 - 수업시수 편성운영 모델 보급
2. 토요일 돌봄 및 교육 프로그램 확대
 - 토요일 돌봄교실 확대
 - 토요일 방과후학교 운영 확대
 - 학교 토요일 스포츠데이(Sports Day) 운영
 - 가정-지역사회 연계 체험활동 강화
3. 안정적 지원체제 구축
 - 법령 개정 등
 - 교육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주5일 수업제 지원센터 운영
 - 대국민 홍보 강화

특히 주5일수업제 정착의 기준으로 여겨지고 있는 학교에서의 토요일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의 계획은 다음과 같고 이를 바탕으로 2012년부터 본격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 토요일 돌봄교실 및 토요일 방과후학교 확대 운영(전체 학교 운영)
 - 초등학교 토요일 돌봄교실: 1,050개교 10,000여명이 참여 추정(2011.4)
 - 토요일 방과후학교 : 전국 2,170개 학교(전체 학교의 19.3%)에서 132,725명이 참여(전체 학생의 1.84%)하는 것으로 파악(2010.6), 2012년부터 토요일 돌봄교실(초등학교) 및 토요일 방과후 학교(초·중등학교)를 전체 학교로 확대 추진
 - 초등학교는 예체능 중심의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중등학교는 예체능 중심으로 하되 필요시 교과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함
- 토요일 스포츠데이(Sports Day) 운영 : 학교내 토요일 스포츠클럽 강습 및 토요일 스포츠 리그를 운영하며 이에 따른 강사를 지원함(2011년 300명 ⇒ 2012년 2,000명 ⇒ 2013년 5,000명)

- 학교-가정-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다양한 체험활동을 위해 지역사회 인프라를 활용한 체육, 예술 프로그램 정보 제공과 활동 지원 강화, 교육기부를 통한 자원 활용 및 학생들의 재능나눔 및 봉사활동 활성화, 학부모 서포터스단 운영 등 지역중심의 체험활동 확대

교육과학기술부의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시도 차원에서 2012년에 적용된 운영사례를 부산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부산시교육청 주5일수업제 운영 자료).³⁾

추진목표는 1.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신장, 2.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바른 인성함양, 3. 가족간 유대증진과 학생 개인의 행복한 삶의 질 제고로 설정하였다. 특히 필요성에 대해 가정과 지역사회의 교육력 회복, 학습의 장 확대, 다양한 현장체험의 기회제공을 제시함으로써 학교의 전유물로서의 교육이 아닌 가정과 사회에서의 2일제 교육으로 학습 기반을 넓히게 됨을 강조하고 있다. 주5일수업을 위해 교육과정 운영의 기준은 수업일수 조정과 교육과정 기준 수업시수 확보를 중점 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다. 수업일수는 법령을 기준으로 단위학교 실정에 맞는 수업일수를 확보하되 재량휴업일은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과정 시수를 준수하며 수업시수 확보를 위해 토요일에 감축하는 수업시수 만큼 주중 분산, 방학일 감축, 학교 행사 정선 등 학교 여건에 따른 방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교육과정 편성 운영상의 유의사항으로 주별, 월별, 학기별 수업시수의 탄력적 편성으로 주중 수업시간의 과다편성 지양, 예체능 교과기준 시수 확보, 창의적 체험활동 편성 운영시 학교의 행사활동 중 수련활동, 국토순례, 수학여행 등의 일회성 행사를 지양하도록 하고 있다.

토요 프로그램으로는 학교 속 토요스쿨 운영 확대, 토요 홈스쿨 운영 내실화, 지역사회 토요스쿨 운영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토요스쿨이란 “매주 토요일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학교, 가정, 지역사회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 및 활동을 총칭하는 토요 교육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가정과 지역사회에서의 토요스쿨을 위한 안내와 지원과 함께 학교에서 진행하는 토요스쿨의 내용은 초등은 돌봄, 문화예술, 체육놀이, 특기 신장 중심으로 운영하고 중등은 특기신장, 심화보충학습, 취미, 봉사활동 등 진로 연계 프로그램으로 특성화를 추진한다. 전체 초등학교의 토요 돌봄교실 운영 지원, 토요 방과후학교 운영, 학교 특색 토요프로그램 운영, 토요스포츠데이 운영(스포츠 강사 지원), 토요 영어체험교실 운영, 수학과학창의체험교실 운영, 특성화고 연계 진로직업체험교실 운영 등이 주요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3) <http://5days.go.kr/main/main.php> 부산시교육청 주5일수업제 토요배움터 홈페이지.

2. 학교교육에 대한 영향 :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1) 교육과정 운영체제에 대한 영향

2012년 현재 일선 학교에서의 연간교육과정은 주5일수업제에 따른 법정 수업일수를 기준으로 수립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교육과정 편성 운영 기준 및 학교의 방향과 여건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학교의 연간교육계획은 학교 단위로 편성되기 때문에 학교와 연계사업을 추진하는 학교 밖 기관의 입장에서는 학교별 여건과 편성과정을 고려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게 된다. 특히, 블록수업제, 집중이수제, 주5일수업제와 창의적 체험활동 편성의 다양성 등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주5일수업제가 학교교육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우선 수업일수와 수업시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법정 수업일수는 법에서 규정한 수업일수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전면적인 주5일수업제를 실시하는 학교는 190일 이상 수업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교육과정 수업일수는 교육과정상의 교육활동을 위한 수업일수의 기준이다. 일년간 34주를 기준으로 교육과정상의 수업시수를 편성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과정 수업일수에는 교과수업 및 창의적 체험활동에 배정된 수업시수가 포함된다. 그리고 법정 수업일수에서 교육과정 수업일수를 감한 나머지 일수는 학교장의 재량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즉, 법정 수업일수에서 남는 수업일수는 학교장 재량에 의해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수업일로서 그동안 이 기간을 이용하여 수학여행, 수련활동 및 체육대회 등 다양한 학교 행사활동이 가능하였다.

* 예 : 법정 수업일수가 190일 이상일 경우(전면적인 주5일 수업시)

교육과정 수업일수 34주 x 5일 = 170일

학교장 재량 수업일수 = 20일

수업일수와 함께 학교의 연간교육과정 편성의 기준이 되는 것은 교육과정에 의한 수업시수이며, 주5일수업제 실시에 따라 수업일수가 축소가 되더라도 교육과정상 수업시수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학교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수업일수의 기준은 법적으로 줄였지만 수업시수는 유지가 된다는 것이다. 현재 적용중인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경우 고등학교에서 학년별 기준으로

2단위(1단위는 34주당 1시간 편성에 의한 34시간을 의미, 3년간 6단위-총 204시간 감축)씩 총 6단위의 수업시수가 감축되었지만 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이전의 수업 시수가 유지되고 있다. 이는 주5일수업제로 인해 학교, 교사 및 학생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평일 수업시수의 증가라는 문제를 야기시킨다.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수업시수는 2009개정 교육과정이 전면적인 주5일수업제를 전제로 개정되었다고 하지만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수업시수는 2007~2008 개정 교육과정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

표 2 교육과정 영역별 개정에 따른 시수편성의 변화

구 분		제7차교육과정	2007개정교육과정	2009개정교육과정	
수업 시수	교 과 활 영 역	초1	740	740	1,408
		초2	748	748	*연평균 704
		초3	884	850→884(08.12개정)	1,768
		초4	850	816→850(08.12개정)	*연평균 884
		초5	952	918→952(08.12개정)	1,972
		초6	952	918→952(08.12개정)	*연평균 986
		중1	952	952	3,060
		중2	952	952	*연평균 1,020
		중3	952	952	
		고1	56단위(952)	60단위(1,020)	180단위(3,060)
	고2~3	136단위(2312)	132(2,244)	*연평균 1,020	
	재 량 활 영 역	초1	60	60	1)초1~초2
		초2	68	68	272
		초3	68	68	*연평균 136
		초4	68	68	(‘우리들은1학년’
		초5	68	68	페이지-80시간 포함)
		초6	68	68	
		중1	136	102	2)초3~초4
		중2	136	102	204
중3		136	102	*연평균 102	
고1		12단위(204)	6단위(102)		
고2~3	없음	없음	3)초5~초6		
기 타 활 영 역	초1	30	30	204	
	초2	34	34	*연평균 102	
	초3	34	34		
	초4	68	68	4)중1~중3	
	초5	68	68	306	
	초6	68	68	*연평균 102	
	중1	68	68		

구 분		제7차교육과정	2007개정교육과정	2009개정교육과정
연 간 수 업 기 준	중2	68	68	5)고1~고3 24단위(408) *연평균8단위(136)
	중3	68	68	
	고1	4단위(68)	4단위(68)	
	고2~3	8단위(136)	8단위(136)	
	초1	830	830	1,680
	초2	850	850	*연평균 840
	초3	986	952→986(08.12개정)	1,972
	초4	986	952→986(08.12개정)	*연평균 986
	초5	1,088	1,054→1,088(08.12개정)	2,176
	초6	1,088	1,054→1,088(08.12개정)	*연평균 1,088
	중1	1,156	1,122	3,366 *연평균 1,122
	중2	1,156	1,122	
	중3	1,156	1,122	
	고1	72단위(1,224)	70단위(1,190)	204단위(3,468) *연평균 68단위(1,156)
고2~3	144단위(2,448)	140단위(2,380)		
(고)	총 216단위	총 210단위		

현재 적용되는 교육과정상의 수업시수에 대한 <표 3>의 정리자료를 기준으로 수업시수와 수업일수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교육과정 수업일수는 34주를 기준으로 매주별 5일씩 총 170일을 기준으로 하고 이외의 20일은 학교장 재량으로 다양한 체험활동 등에 활용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170일을 기준으로 할 경우 현재의 수업시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별 수업시수가 매일 1시간씩 추가되어야 운영이 가능하게 된다.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 7교시가 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이는 교사나 학생 모두에게 부담이 되고 수업의 질을 저하시키게 된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교육과정 편성에 관한 교육과정평가원의 보고서에서는 190일 과정과 195일 과정을 제시하였다.⁴⁾ 실제 학교에서 기존 토요일에 진행된 수업시수를 평일에 분산시키기 위해서는 평일 중 수업시수 증가, 방학일수의 감축과 함께 법정 수업일수 전체를 교육과정에 의한 수업시수로 모두 편성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195일을 기준으로 수업시수를 편성하면서 평일 중 1~2일의 수업시수가 작년보다 1시간 정도 늘어나게 되었다. 이는 교과활동과 창의적 체험활동을 포함한 교육과정상 수업시수 이외에 다른 추가적인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이 어렵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즉, 195일을 기준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할 경우에도 교육과정 기준 시수 이외에는 추가적인 창의적 체험활동(특히 행사활동)을 해당 수업일수 내에서 편성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된다.

4)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1), 주5일수업제의 실태와 향후 추진방안 연구.

표 3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학년별 수업시수 분석

구 분	교과시간	창의적 체험활동	학년평균 연수업시간	주당평균시간 (34주 기준)	수업일수별 일평균시간			
					170일	190일	195일	
초 등 학 교	1~2	1,408 *연평균 704	272 *연평균 136	840	25	4.9	4.4	4.3
	3~4	1,768 *연평균 884	204 *연평균 102	986	29	5.8	5.2	5.1
	5~6	1,972 *연평균 986	204 *연평균 102	1,088	32	6.4	5.7	5.6
중 학 교	1~3	3,060 *연평균 1,020	306 *연평균 102	1,122	33	6.6	5.9	5.8
고 급 학 교	1~3	180단위 (3,060) *연평균 1,020	24단위(408) *연평균 8단위(136)	1,156	34	6.8	6.1	5.9

* 창의적 체험활동 : 예) 연평균 102시간은 주당 평균 3시간(34주×3시간) 편성 가능

* 주당 평균시간은 교육과정 편성 34주를 기준으로 함

* 수업일수별 기준은 연간 총 수업일수를 기준으로 함

2)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한 영향

2009개정 교육과정을 통해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중 기존의 특별활동과 재량활동을 통합한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이해가 부족한 측면이 있었고 이와 관련된 기록관리 지침의 변경으로 인해 학교와 학교 밖 현장에서 혼동이 있었다. 초기에는 학교 교육과 무관한 개인적인 체험활동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폭 넓게 이해한 부분도 있고, 체험활동 자체가 창의적이어야 한다는 오해까지도 있었다. 창의적 체험활동이라는 명칭 자체는 특정한 교육활동을 지칭하는 법적 명칭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언어로 이해되기 때문이었다. 실제 교육과정에 제시된 창의적 체험활동 편성 및 운영의 기준은 기존의 특별활동 편성 운영 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교육활동으로 오해되기도 하였다. 교육과정 총론 등을 기준으로 창의적 체험활동의 편성 및 운영의 주요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⁵⁾ 제7차교육과정의 특별활동 편성 운영기준과 비교하면 영역의

5) 김대원(2011), “창의적 체험활동의 내실화 방안”, 교육과학기술부·대구광역시교육청, 「창의적 체험활동-에듀팟 시도 교육전문직 워크숍」에서 인용함.

분류가 변경되었다는 점과 교육활동의 기록을 위한 시스템이 도입되었다는 점 이외에는 사실상 큰 변화가 없다.

- ① 최소 시수 이상 편성하되, 기준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 확보 운영 권장
- ② 영역별 시간수는 학생의 요구, 학교의 실정에 따라 재량으로 배정하되, 학년별로 활동영역 및 내용을 집중적으로 운영 가능
- ③ 4개 영역 중 특정 영역이 누락되거나, 고3에서 미편성되지 않도록 유의
- ④ 정일제, 격주제, 전일제, 집중제 등 융통성 있게 편성·운영
- ⑤ 자율활동의 국토순례활동, 봉사활동, 진로체험 활동 등은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집중운영 가능
- ⑥ 지역사회 인적, 물적 자원을 계획적으로 활용(학교간 시설 설비의 공동 활용, 자료공동개발·활용, 교원 교류 등)
- ⑦ 창의적 체험활동은 모든 교사가 담당할 수 있음
- ⑧ 창의적 체험활동 종합지원시스템을 활용하여 계속적 누적기록(상급학교 진학자료 및 진로교육자료로 활용)
- ⑨ 다양한 체험활동을 기본으로 하되, 교육활동 상 필요한 자료는 인정도서,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장학자료, 학교 자체 개발 자료 등을 활용

창의적 체험활동의 개념 설정 단계에서는 개인적인 다양한 교육활동의 경험까지 포함하는 방향이 검토되었으나 실제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을 고려할 때 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사교육 증가 문제와 교육기회의 형평성 문제도 중요한 이유이지만 원칙적으로 교육과정은 학교의 교육활동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창의적 체험활동 기록관리 시스템인 '에듀팟'의 운영에 대한 기록 대상 범위는 몇 차례 수정이 되었다. 봉사활동,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의 4가지 활동으로 구성되는 창의적 체험활동은 초기에는 개인계획에 의한 체험활동도 기록 대상으로 일부 인정이 되었으나, 사교육업체의 문제와 관련하여 2011년 5월 '2011 에듀팟 운영 계획'에 따라 모든 개인계획에 의한 체험활동이 기록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2012년 2월에 수립된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한 창의적 체험활동 기록관리 종합 개선 방안'에서는 공공성이 인정되는 기관에서의 체험활동으로 학교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개인계획에 의한 체험활동은 기록대상으로 포함하였다. 학교생활기록부 와 에듀팟에서의 기록 및 관리 방식에 대한 변경은 다음의 <표 4>와 같다.

표 4

학교생활기록부 및 에듀팟 기록 관리 방법(2012.2 변경안 기준)⁶⁾

분 류		내 용		현행			개선안		
				학생부		에 듀 팟	학생부		에 듀 팟
				시 수	특기 사항		시 수	특기 사항	
학교 주도 창의 적 체험 활동	학 교 교육과정	• 정규 교육과정 편성·운영		○	○	○	○	○	○
	교육과정 외 학교 교육활동	• 학교에서 계획·관리하는 체험활동 ※ 예외: 봉사활동, 학교 스포츠클럽 은 학생부 시수 기록 인정		×	○	○	×	○	○
개인 계획 의한 창의 적 체험 활동	봉사 활동	공인 기관 활동	정부부처, 공공기관, 교육기부단체 등	○	○	×	○	○	○
		비공인 기관 활동	사교육기관, 해외 봉사활동 등	×	×	×	×	×	×
	자율· 동아리 진로활동	공인 기관 활동	정부부처, 공공기관, 교육기부단체 등	×	×	×	×	×	○
		비공인 기관 활동	사교육기관, 해외 봉사활동 등	×	×	×	×	×	×

변경안은 개인계획에 의한 체험활동 중에서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및 각종 공공기관에서의 체험활동도 에듀팟 기록 대상으로 확대가 되었다는 점에 기존 기준과 차이가 있다. 그러나 학교장의 사전 승인을 전제로 한다는 점은 폭 넓게 본다면 학교 교육과정의 테두리에서 학교에서 교육 프로그램으로 인정할 수 있는 학교 밖 프로그램이라는 점을 배경으로 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예시로 제시된 공공성이 인정되는 기관에서의 체험활동에 대한 기준을 앞의 개선 방안에서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⁷⁾

【창의적 체험활동 인정 기관 기준(예시)】

- ✓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실질적인 학생발달단계를 고려한 프로그램인가?
- ✓ 공익을 위해 운영되는 프로그램인가?

6) 교육과학기술부(2012.2),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한 창의적 체험활동 기록관리 종합 개선 방안”. p.3

7) 앞의 자료, p.6.

- ✓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인가? (정기적 활동, 주말방학활동, 토요일업일 활동, 특성화 프로그램 등)
- ✓ 장기적인 계획이나 비전이 있는 프로그램인가?
- ✓ 학생 개인의 추가 부담을 요구하지 않는 무료 프로그램인가?
- ✓ 특별한 자격요건(예를 들어 토익이나 토플점수 등의 사교육을 유발할 수 있는 자격)을 요구하지 않는 프로그램인가?
- ✓ 체험 활동을 직접 담당하는 지도자나 실무자가 존재하는가?
- ✓ 활동 후, 체험에 대한 소감이나 반성을 기록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며 그에 대한 피드백을 하도록 계획된 프로그램인가?

주5일수업제와 관련하여 창의적 체험활동과 기록 관리 시스템인 ‘에듀팍’ 운영 기준은 학교에서의 토요일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주말 청소년 체험활동의 활성화에도 중요한 변수가 된다. 교육과정 수업일수의 문제에서 살펴보았듯이 학교 내에서 수업일수 운영 체제는 정해진 수업시수 이외에 추가적인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에 제약이 된다. 그러나 정규교육과정 이외라도 학교에서 계획하고 시행한 주말 단위 동아리활동이나 토요일 교육 프로그램은 기록 대상이 된다. 이와 함께 개인계획의 경우라도 사전 승인 및 공공성 인정기관에서의 활동을 전제로 하는 일부 활동은 기록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주말을 활용하여 학교에서 주관하거나 또는 학교에서 인정한 개인의 체험활동이 에듀팍 기록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영과정에는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토요일에 근무해야 하는 학교 교사들의 참여 여부 및 개인 계획의 경우 사전 승인과정과 개인별 활동 기록을 승인해야 하는 교사들의 업무 부담에 따른 문제 등이 학교차원에서는 제기될 수 있다. 토요일 교육 프로그램이 확대되면서 일선 학교의 교사들이 격주로 근무하거나 외부 스포츠 강사자원을 확보하지 못한 학교의 경우 토요일 스포츠데이의 운영을 위해 체육교사가 이를 담당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⁸⁾ 또한 공공성 인정 기관에서의 활동을 기록할 경우 지역에 따른 공공기관의 편차, 정부기관별 지원의 여부에 따른 지역적 기회의 편차 등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도시 지역은 유리하고 농촌 지역은 공공기관의 서비스에 불리하다면 이는 또 다시 공공성에 의한 역차별이 되기 때문이다.

8) ‘주5일 수업...교사들 “주말이 더 바빠”, 충청투데이, 홍순철 기자, 2012.3.28.

제 3 장

기본방향 : 청소년 의식과 생활구조에 따른 접근

앞에서 살펴 본 내용은 주5일수업제가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체제에 미치는 영향 및 예상할 수 있는 몇 가지 문제점을 정리한 것이다. 현재의 주5일수업제 운영 체제에서는 교육과정상의 수업시수가 축소되지 않는 한 교육과정 시수 이외의 다양한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에 한계가 있다.

창의적 체험활동 기록 관리 시스템인 에듀팍에 학교에서 직접 운영 또는 추천, 승인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나 체험활동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은 주말 프로그램 운영에 장점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장점은 학교 밖에서 청소년 체험활동의 핵심적 역량을 구축하고자 하는 청소년정책 및 청소년기관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활용할 가치가 있다. 학교 연계의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학교에서 요구하는 체험활동을 제공하거나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소년들이 활용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으로는 첫째, 학교의 부속 또는 보조 기관으로서의 위상 격하, 둘째, 공공성을 인정하는 경우라도 무료 프로그램 및 교육 프로그램으로서의 가치에 대한 요구, 셋째, 학교 내부적으로 사전 승인 및 기록 승인 등 학교 업무 부담이나 공공기관 편차에 따른 지역적 형평성 등이 예상이 된다. 학교를 지원하고 연계하는 주체로서의 지역사회 청소년활동 기관이 아니라 학교를 보조하는 역할에 치중할 경우 독자적인 정책 영역으로서의 존재 가치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전략적 관점에서 학교 연계를 통한 수요층 확대는 매우 의미있고 필요한 방법이지만 이와 동시에 청소년활동의 주체들이 독자적인 운영체제를 갖추고 주말 중심의 청소년 체험활동을 확대할 수 있는 전문성과 독립성의 구축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이는 지역사회에서 고객으로서의 학교와 연계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요건이 된다. 학교를 포함하여 기관간 연계란 단지 수요자 확보를 위한 통로가 아니라 전문화된 서비스 콘텐츠와 역량을 갖출 때 자연스럽게 상호간의 교류를 통해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선 청소년활동 분야의 주체들이 전문적이면서 독립적인 운영체제를 갖추기 위한 기본방향을 청소년의 관점에서 접근해보고자 한다. 주5일수업제 또는 주말 청소년체험활동

정책 및 사업과정에서 그동안 직접적인 프로그램 운영이나 홍보에 치중하였지만 정작 그 주체가 되는 청소년의 생각과 삶의 기반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1. 청소년들의 의견 사례분석을 통한 접근방향

1) 주5일수업제에 대한 일반적 의견 조사 사례

2012년 전면적인 주5일수업제의 시행에 앞서 주5일수업제와 관련된 청소년 대상의 조사가 몇 가지 실시되었다.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5일수업제에 대한 청소년들의 의견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2011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중학생은 81.1%, 고등학생은 78.5%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⁹⁾ 한국교총의 2011년 조사에서는 조사 대상 청소년들의 87.9%가 찬성, 12.1%가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한국교총 보도자료 2011.6.14.).

둘째, 주5일수업제로 인한 개인적인 여가시간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서울특별시립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실시한 2011년 조사결과를 보면 5점 만점을 기준으로 개인적인 여가시간이 늘어날 것이라는 응답이 3.73점, 사교육이 늘어날 것이라는 응답이 3.63점, 부모님과의 여가시간 증대와 다양한 청소년활동이 늘어날 것이라는 데에 각각 3.38점, 청소년활동이 대중화할 것이라는 데에는 3.08점의 결과를 보였다.¹⁰⁾ 응답결과를 보면 개인적 활동은 증가하지만 조직적인 활동은 보통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에서 실시한 2011년 조사결과에서도 여가시간의 확대나 시설 확대 등 여가활동에 대한 기대가 나타나고 있다.¹¹⁾

9)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1), 주5일수업제의 실태와 향후 추진방안 연구, p.25.

10) 서울특별시립 청소년활동진흥센터(2011), 청소년활동 포럼 자료집, pp.22~23.

11)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2011), 성남시 청소년활동 실태 및 요구조사.

표 5 주5일 수업에 시행 시 생활 변화

구 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순위
현재보다 여가 활동 시간이 늘어날 것이다	1459	1	5	3.86	1.174	1
현재보다 학교생활에 여유가 생길 것이다	1456	1	5	3.66	1.226	2
현재의 생활과 크게 달라질 것이다	1462	1	5	3.13	1.279	3
현재보다 학원, 과외 시간이 늘어날 것이다	1456	1	5	2.86	1.297	4

자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2011), 성남시 청소년활동 실태 및 요구조사.

셋째, 청소년 실태 또는 청소년활동 요구조사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조사연구에 포함되는 ‘참여하고 싶은 활동 유형’에 대한 조사는 대부분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한국교총의 조사결과를 보면 토요일에 원하는 활동으로 집에서 휴식(35.3%), 가족과 여가활동(29.6%)이 높게 나타났다. 성남시 청소년 대상의 조사결과에서도 다른 조사 결과와 비슷하게 스포츠-문화활동(26.7%)과 여행활동(20.2%)에 높은 응답율을 보이고 있고 별일 없이 (휴식)한다는 응답도 15.1%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체험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응답은 상당히 유의미한데 재미가 없다는 응답이 41.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6 매주 토요일업일 운영 시 하고 싶은 활동

구분	매주 토요일업일 운영 시 하고 싶은 활동										전체
	개인 적인 학습 활동	교과 관련 학원 과외	예체능 학원 수업	박물관 등 현장 체험	학교 토요 수업	여행 활동	스포츠 문화 활동	사회 봉사 활동	별일 없이 지냄	기타	
응답수	136	21	114	99	21	279	369	41	209	93	1382
백분율	9.8%	1.5%	8.2%	7.2%	1.5%	20.2%	26.7%	3.0%	15.1%	6.7%	100.0%

자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2011), 성남시 청소년활동 실태 및 요구조사.

표 7

학교, 지역에서 운영하는 체험활동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

구분	학교나 지역 운영 체험활동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						전체
	부모님이 못하게 함	비용이 많이 들어서	시간이 없어서	재미가 없어서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렵다	기타	
응답수	62	94	316	580	254	97	1403
백분율	4.4%	6.7%	22.5%	41.3%	18.1%	6.9%	100.0%

자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2011), 성남시 청소년활동 실태 및 요구조사.

넷째, 청소년활동 또는 주말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운영기관의 유형에 대한 질문에 대해 청소년들은 조직적인 기관에서의 활동보다 개인적인 활동을 원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서울특별시립 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복수응답을 기준으로 바람직한 프로그램 운영 기관에 대해 학교(59.1%), 청소년수련시설(46.4%), 청소년단체(30.6%), 종교시설(8.4%)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하지만 청소년수련시설의 토요일 프로그램에 참여하겠냐는 질문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69.6%로 부정적인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¹²⁾ 성남지역 청소년대상의 조사결과에서도 학교를 포함하여 동아리,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등 조직적인 성격을 갖는 활동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인 응답 비율이 높았다(〈표 8〉 참조).

이는 청소년들이 개인적 활동을 원하고 집단 중심의 활동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 청소년들은 개인적인 자유로운 활동(학습, 여가)을 원하지만 특정한 조직에서의 집단적인 활동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특히 동아리 활동에 대해서도 호응도가 높지 않음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 게임의 영향이나 과외학습으로 인한 시간의 부족, 어울릴 경험이 없었던 영향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집단에 귀속되기 싫어하는 청소년들의 의식을 보여주는 측면도 있을 것이다.

12) 서울특별시립 청소년활동진흥센터(2011), 앞의 자료, pp.23~26.

표 8 주5일 수업제 시행 시 활동 참여 의사

구 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순위
학교의 동아리 활동에 참여한다.	1440	1	5	2.54	1.251	1
학교의 토요스포츠클럽에 참여한다.	1444	1	5	2.39	1.259	2
지역 문화시설의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1438	1	5	2.36	1.156	3
청소년시설의 활동에 참여한다.	1435	1	5	2.35	1.160	4
청소년단체 토요일 활동에 참여한다.	1435	1	5	2.29	1.143	5
학교의 토요 방과 후 학교에 참여한다.	1441	1	5	2.18	1.134	6

[자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2011), 성남시 청소년활동 실태 및 요구조사.

개인적이고 임의적이며 자율적인 활동을 원하는 청소년들의 경우 청소년시설이나 단체 또는 학교에 서의 주말 프로그램에 대한 흥미도나 참여도는 낮을 수 밖에 없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의 의식, 가치관, 생활문화의 변화와 연계되어 앞으로 지속 또는 강화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간섭을 싫어하는 청소년들의 의식과 문화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주말 프로그램에 청소년들의 참여도가 낮은데 대한 이유로 돌릴 수도 있다.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어떻게 활용하고 접근하는가에 따라 좀 더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할 수도 있다.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서 막연한 참가 대상 청소년의 상정은 학교든 청소년기관이든지 비효과적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사례가 된다. 또한 막연하게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는 정책의 방향이 구체적인 전략과 사업에서는 특화된 대상에 서비스를 집중할 필요가 있음도 의미한다.

주5일수업제 또는 주말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과정에서 개인적 활동을 원하는 청소년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며, 동시에 조직적 활동을 원하는 청소년에 대한 집중적 지원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단체나 시설을 기반으로 하는 청소년활동의 관점에서는 조직에서의 집단활동을 원하는 청소년 대상 서비스에 집중하고 이에 대한 효과를 증명한 후 점진적으로 고객을 확대하는 전략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청소년시설의 경우에는 시설의 프로그램 참여에만 집중하지 말고 지역사회의 청소년 개인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활동공간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청소년들의 흥미를 제고하는 것도 중요한 요건이 된다는 점을 필수 요소로 참고해야 한다.

2. 청소년들의 생활특성에 따른 주5일수업제의 접근방향

주5일수업제 접근을 위한 방향으로 청소년들의 생활특성을 기준으로 청소년 또는 청소년활동 관점에서 관심을 두어야 할 영역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주5일수업제가 학교 수업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보면 학교를 중심으로 접근하게 되지만 실제 청소년들의 삶의 양식 또는 생활구조를 중심으로 보면 학교 중심의 관점을 더 넓은 영역으로 확장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활동의 관점에서는 학교와 연계하되 더 광범위하고 독자적인 청소년활동 영역의 지평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생활시간을 기준으로 청소년들은 ‘학교 수업시간-방과후 활동시간-주말 활동시간’을 보내게 된다. 학생을 기준으로 할 때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가정, 지역사회를 배경으로 하는 방과후시간과 주말시간은 학교 수업이 아닌 일상의 생활시간으로 의미를 갖는다.

둘째, 학교 건물 공간을 기준으로 학교안에서의 활동과 학교밖에서의 활동 또는 생활을 영위한다. 청소년들에게 학교 공간이 미치는 심리적 영향은 매우 크다는 점에서 학교 밖은 학교와 다른 새로운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

셋째, 활동의 내용을 기준으로 학교와 연계된 교육활동과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임의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교육활동은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수업 및 각종 체험활동을 포함하며 공간과 연계할 때 학교안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학교의 교육활동도 포함한다. 반대로 임의활동은 학교 밖에서의 경험을 중심으로 하지만 학교라는 건물을 활용한 개인의 임의적인 활동 경험도 포함한다.

넷째, 청소년들은 일주일간의 요일을 기준으로 보면 주5일의 수업일과 주2일의 휴일로 이루어지는 생활을 하고 있다. 교육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요일이 공부하는 날이고 주5일수업제의 방향과 명분은 주2일도 주도적 학습을 하는 날이 될 수는 있으나 주2일은 개인의 임의적인 활동을 전제로 하는 휴일이다.

다섯째, 삶의 공간을 기준으로 보면 청소년들에게 기본적인 공간인 가정과 일상생활을 사는 지역사회 및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학교공간으로 구분된다. 주5일수업제는 학교라는 공간 중심의 교육활동을 전제로 하며 일부 학교교육으로 운영되는 지역사회 안에서의 교육을 포함한다. 그러나 가정과 지역사회 공간은 청소년들의 일상생활의 공간으로 자유롭고 임의적인 활동(개인적 학습을 포함하는)의 공간이다.

청소년들의 생활 전체 또는 특성을 기준으로 볼 때 청소년들은 방과후와 주말에 학교에서 요구하는 교육활동 이외에 자기 자신의 개발을 위한 다양한 경험과 일상생활을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영위하고 있다. 특히 주5일간의 수업일이 아닌 주2일의 휴업일은 학교의 관장 영역이 아니라 가정과 지역사회에서의 개인의 임의적인 영역이다. 청소년의 관점에서 본다면 주5일의 수업일은 학교에서 청소년들이 생활하는 요일중 방과후를 제외한 학교라는 공간에서의 교육시간을 의미한다. 그러나 주2일의 휴업일은 전일동안 개인이 자신의 일상생활이나 자기개발을 위해 투자할 수 있는 개인의 임의적인 활동시간과 공간을 의미한다. 청소년활동은 학교중심의 수업일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청소년의 일상의 관점, 임의적인 활동이 가능한 시간과 공간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활동의 관점에서 주5일수업제는 지역사회 중심의 청소년 개인의 임의적인 활동경험을 중심으로 학교 또는 가정에서의 생활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주5일 수업제가 아닌 주2일휴업제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주5일 수업과의 연계의 관점에서 더 나아가 주2일휴업제의 활용의 관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청소년활동의 관점에서 주5일수업제는 독자적인 활동 공간으로서의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학교는 지원 또는 연계의 대상으로 설정해야 한다.

제 4 장

청소년활동에서 주5일수업제에 대한 대응방안

1. 기본전제

주5일수업제가 논의되고 도입이 되던 시점에서 청소년활동의 관계자들은 대체로 청소년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기회로 이를 받아들였다. 개인적인 여가시간이 늘어나고 이용자나 참여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전면적인 주5일수업제가 실시된 현재의 시점에서 본다면 그 성과를 논의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수년간의 운영 결과를 토대로 분석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의 주5일수업제의 실행과정이나 청소년들의 생활시간을 분석하면 매주 쉬게 되는 토요일에 청소년들의 활동 프로그램 참여율이 높아질 것으로 속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부분적인 주5일수업제 도입 이후 여가시간이 오히려 감소했다는 보고도 있지만(하루 평균 여가시간이 04년 4시간 33분에서 09년 4시간 5분으로 감소), 더 큰 문제는 휴일을 활용한 사교육시간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사교육은 가정의 입장에서는 비용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시간을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평일의 사교육 시간을 주말로 옮길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주5일수업제가 막연히 청소년활동에 기회가 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그동안의 경향과 사례를 바탕으로 적절한 대응 전략의 수립과 추진에 따라서 위기의 요소를 미리 알고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논의가 필요한 것이다. 몇 가지 요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독자적 운영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최근의 청소년활동 정책 또는 사업에서 나타나는 양상중의 하나는 타 분야, 특히 학교와의 연계에 치중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다른 정책 분야에서도 교육 사업의 경우 학교를 연계의 중심으로 하고 있으나 이는 정책의 보급과 대국민 정책 서비스의 확산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이에 비해 청소년활동은 당초의 연계의 의미를 살리지 못하고 보조기관 또는 하위 사업의 개념으로 진행되는 측면도 있다. 따라서 청소년활동은 학교 교육과정으로서의 주5일수업제가 아닌 지역사회 기반의 주2일휴업제를 위한 독자적 운영전략과 고유의 정체성, 운영시스

템을 갖추어야 한다.

둘째, 청소년중심의 고유의 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 청소년활동의 강점은 다양한 활동 소재와 내용을 포괄하고 있지만 동시에 고유의 전문성을 갖지 못하는 단점도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예술 교육 지원사업 및 저작권교육 지원사업, 법무부의 법교육-법문화 체험 지원 사업, 환경부의 환경교육 프로그램 등 콘텐츠 중심의 정책부서와 비교하여 대상중심의 청소년활동 정책이 갖고 있는 단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특히 평생교육기관의 강좌 프로그램 운영 체제가 청소년시설에도 보편화되면서 프로그램 콘텐츠 보다 강사관리가 더 중요한 업무가 되기도 하였다. 다른 정부부처와의 비교를 통해 보면 이 문제는 매우 심각할 수 있는데 주말활동에 특화된 특색있고 경쟁력 있는 활동 콘텐츠와 전문인력의 확보가 가장 시급한 상황이다.

셋째, 대중적인 호응도가 필요하다.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가 정보부족이나 비용 때문이 아니라 재미가 없어서라는 응답은 현재의 실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자료가 된다. 재미나 호응도가 단순히 감각적인 순간의 재미만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다. 주말을 활용할 수 있는 청소년들의 자율적 활동 지원이나 청소년감각에 적합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체제가 확대되어야 한다. 짜여진 여행보다 만드는 여행과 같이 청소년들의 실제적인 흥미도를 높일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

넷째, 실효성 있는 지역연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주말 중심의 청소년활동이 활성화되고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운영 기반과 전문화된 콘텐츠-인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자원과의 공동 사업을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 매우 다양한 청소년들의 요구를 제한된 자원을 가진 특정 기관에서 모두 수용할 수는 없다. 고유의 전문화된 콘텐츠를 중심으로 지역내 또는 다른 지역과의 실효성 있는 연계망이 필요하다. 연계는 단순한 협의회가 아닌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할 수 있는 공동사업 체제로 발전시켜야 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활동의 주체들(단체나 시설 중심) 주말을 기반으로 하는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의 허브가 될 수 있고 이를 통해 존재의 가치와 위상을 강화할 수 있다.

다섯째, 재원의 공공성 비율을 높여야 한다. 최근 공공분야에서도 수익자부담을 통한 자생적 사업의 발굴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그런데 이는 그 대상 측면에서 수익자부담 우선 사업과 공공재원 부담 우선 사업의 구분이 필요하다. 청소년 대상의 정책서비스는 수입이 없는 사회적 지원 대상인 청소년을 전제로 함에도 불구하고 부모 등의 경제적 부담 비중이 높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수익자부담 원칙이 있지만 공공재로서의 청소년시설 조차도 수익사업 시설과 다를 바 없는 경우도 있다. 원칙적인 측면에서의 불리함 외에도 다른 부처에서의 청소년대상 지원 사업과 비교할 때에도 현재의 청소년활동

은 주말 서비스 확대는 한계가 있다. 다른 사례로 창의적 체험활동의 경우 학교에서는 교육기부를 전제로 연계를 추진하고 있다. 청소년활동 분야에서 창의적 체험활동의 활성화를 요구할수록 오히려 타 부처에 비해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다른 부처의 경우 중앙정부 지원 중심의 학교 교육기부 사업이 주로 진행되는데 비하여 청소년활동 분야에서는 지속적인 교육기부 사업을 갖고 있지 못하며 제한적인 사례만 있을 뿐이다. 주5일수업제와 관련하여 주말 체험활동의 경우에도 이러한 연장선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공공재 및 공공성의 측면에서 주말 중심 청소년활동 서비스를 위한 공공재원의 확보가 필요하다.

2. 청소년단체와 시설에서의 대응 방안

1) 청소년단체에서의 대응 방안

주5일수업제가 청소년단체에 미칠 영향에 대한 예상은 두 가지 관점에서 기회와 위기 문제가 교차하고 있다. 이는 청소년단체의 유형과도 연계되는데 학교중심 청소년단체와 지역중심 청소년단체의 운영 특성에 따른 문제와 창의적 체험활동(에듀팟 기록 대상 활동 중심)과 주5일수업제가 미치는 영향에 따른 문제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상황이다. <표 9>에서 볼 수 있듯이 학교중심 단체는 토요일 지도교사 근무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학교내 단체활동은 불리한 반면, 단체 회원 청소년들의 에듀팟 기록과 관련해서는 학교의 단체활동은 토요일, 일요일 및 방학중 활동도 그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활동 기록 측면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지도교사가 열의가 있다면 학교내 청소년단체 활동은 유리하다. 그러나 문제는 청소년단체 지도교사 확보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전적으로 지도교사의 토요일 추가 근무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이에 비해 지역사회 중심의 청소년단체 중 지역 청소년회원을 기반으로 하는 단체는 주5일수업제로 인해 매주 2일간의 활동일을 확보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게 된다. 그러나 단체의 활동이 모두 에듀팟과 연계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단체의 이념을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청소년 중심으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다수의 회원 보다 소수의 회원을 중심으로 전문적이고 집중적인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단체의 경우 주5일수업제의 활용도가 높을 것이다.

표 9 **단체 유형에 따른 환경 요인의 영향 분석¹³⁾**

구 분	학교중심단체	지역중심단체
주5일수업제의 전면 실시	학교별 지도교사 중심의 토요일 활동의 운영 감소로 단체의 활동력 약화 우려	지역사회 중심의 토요일 전문 프로그램 운영시 참가 대상자의 확보에 유리
창의적 체험활동의 운영	교사에 의한 동아리활동은 에듀팟 기록 범주에 포함되어 학생들이 정규 수업시간 이외의 추가적인 단체 활동 참여시 활동기록을 누가함	개인적으로 참여한 학교 밖 청소년단체의 활동은 학교활동과는 무관하여(에듀팟 대상 제외) 참여 동기 약화 우려

따라서 주5일수업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단체의 유형에 따라 창의적 체험활동을 활용한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 우선 학교중심 청소년단체의 경우에는 학교내 동아리활동 시간의 운영을 위한 시수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회원 개인의 포트폴리오를 위한 체계적인 주말 단위 단체활동 프로그램을 학교교육 계획에 따라 운영해야 한다. 다만, 문제는 이를 위한 지도교사의 확보와 참여가 필요한 상황으로 단체에서의 인센티브 및 지원 체제도 요구된다. 아울러 학교중심 단체가 가지고 있는 콘텐츠의 전문성과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지역단위 조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지역중심 청소년단체의 경우에는 회원 중심 서비스의 집중과 함께 자체적인 콘텐츠를 활용한 학교 연계 사업으로 대상을 확장하는 방법이 있다. 특히 토요일과후학교 등 학교의 토요일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중심 단체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는 주말 중심의 지역단위 프로그램과 자발적 회원의 확대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2) 청소년활동시설에서의 대응 방안

청소년활동시설은 청소년단체의 유형과 달리 시설의 서비스 지역이나 공간의 특성을 기준으로 구분되지만 시설 특성에 따라 주5일수업제로 인한 영향의 정도나 결과에 차이가 발생한다.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운영체제가 정착된 청소년수련관의 경우라면 주5일수업제로 인해 추가된 주2일의 휴업일이 활동시간 확보에 유리할 것이다. 그러나 학교단체 수련활동 중심으로 운영된 청소년수련원의 경우라면 주5일수업제로 인한 수업일수의 감소는 학교단위 고객의 감소라는 문제를 야기시키게 된다. 현재

13) 김혁진(2011), 주5일수업제 전면 시행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발전방안 연구,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p.56.

청소년수련원의 경우에는 이 문제가 현실로 부각이 되고 있다. 시교육청 차원에서 연간학교교육계획 편성시 교육과정상의 수업시수 준수를 위해 수련원을 이용한 학교단체 수련활동의 편성을 지양하도록 하는 사례도 있다.

따라서 청소년활동시설은 지역사회 기반의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의 대응 전략과 숙박활동 중심의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의 대응 전략이 각각의 특성을 기반으로 차별화되어야 한다. 청소년수련관 등 지역사회 기반 청소년시설의 경우에는 주중 활동과 주말 활동 운영 시스템의 차별화가 필요하다. 주중 활동의 경우에도 학교시간대와 방과후시간대의 운영체제의 구분도 필요하다. 지역사회 기반 활동시설의 경우에는 주중-학교시간대는 학교방문-시설방문형의 학교 창의적 체험활동 연계 사업에 집중할 수 있다. 그러나 주말 체험활동은 지역사회 청소년을 중심으로 자체 회원시스템을 구축하는 동시에 차별화되고 장기적으로 참여가 가능한 프로젝트형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독자적인 운영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주말시간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지원 기반을 강화하고 특화된 콘텐츠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아울러 우수한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때 일반 청소년의 참여는 물론 지역내 학교 및 기관의 연계 요청도 수용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청소년수련원 및 유스호스텔은 기존의 창의적 체험활동 중 행사활동에 의한 학교 연계는 향후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된다. 수학여행의 경우 학교의 전통적인 교육활동으로 지속될 수 있지만 별도의 수업일수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학교단체 수련활동의 편성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는 일정 기간 추이를 분석해야 하겠지만 청소년수련원의 경우 그동안 비수기로 남아 있거나 성인대상으로 운영되던 주말을 청소년-가족 중심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지역 특색이나 수련원만의 차별화된 콘텐츠 중심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운영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특화된 콘텐츠를 중심으로 학교와 연계된 소집단 주말활동, 청소년단체 주말체험활동을 강화할 수 있다. 또한 여행의 활성화라는 추세를 활용하여 지역사회 단체와 연계하거나 가족단위 방식의 주말 캠프 여행 프로그램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는 기존의 학교대상 사업의 체제와 비교하여 상당한 변화가 필요한 부분인데, 주5일수업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비를 위해서는 일반 가족-청소년 중심의 주말단위 운영체제로의 전환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학교중심의 운영체제를 벗어나 청소년수련원의 본래 설립 정신과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다.

제 5 장

맺음말 : 주2일 주말 중심의 청소년활동 체제 만들기

주5일수업제가 학교의 수업일수 조정 등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체제의 변화나 (학생) 청소년의 생활시간의 변화를 전제를 하기 때문에 학교를 중심으로 논의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주5일수업제에서 지향하는 궁극적인 방향은 주2일이 학교의 연장이 아니라 학교가 아닌 지역사회 중심의 새로운 교육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청소년활동의 경우 그동안 청소년활동의 운영 주체가 되어 온 청소년단체나 청소년활동시설이 학교의 영향을 많이 받아온 측면이 있다. 여기에 더하여 최근에 학교 연계를 더욱 강조하면서 학교 중심의 사고가 강화된 부분도 있어 주5일수업제 역시 학교중심으로 논의되는 것을 당연시하게 되었다.

그러나 주5일이 아닌 주2일의 휴업일은 학교 밖-교육과정 외의 임의적인 청소년의 자율적 공간이자 시간이다. 적어도 개념적으로는 교과학습을 포함하여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활동을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다. 학교에서 무한책임을 지도록 요구하는 것은 학교에 대한 무리한 요청일 뿐만 아니라 주5일수업제의 취지도 흐리는 것이다. 또한 교육의 차원에서는 지역사회 교육의 강화이겠지만, 방과후 및 주말의 학교 밖 시간과 공간은 청소년활동의 입장에서는 본래부터 고유의 시간과 공간이었다. 즉, 새로운 교육시간과 공간이 확보된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의 다양한 활동을 위한 시간과 공간이 조금 더 늘어난 것이다. 청소년활동의 본래 가치를 구현하는데 있어서 주5일수업제를 통한 주2일의 연속된 휴일은 좀 더 좋은 여건을 제공하는 기회가 된 것이다.

청소년 또는 청소년활동의 입장에서는 주5일수업이 아닌 주2일의 휴업일-주말을 기반으로 보다 전문적이고 다양하며 청소년의 호응과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청소년활동 시스템의 구축이 요구된다. 학교와의 연계 이전에 스스로 자발적인 청소년 참가자를 확보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필요하고, 개인적이고 자유로운 활동을 원하는 청소년을 위한 공간이나 기회의 제공도 더 확대되어야 한다. 청소년시설이든지 청소년단체이든지 학교중심의 사고와 운영체제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운영전략을 바탕으로 주말의 2일을 활용한 경쟁력 있는 활동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그동안 청소년활동을

위한 청소년들의 시간 확보가 학교 수업시간 때문에 어렵고 이 때문에 학교 연계에 매달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매주 2일간의 휴일이 확보된 현재를 기준으로 청소년의 시각과 생활 특성을 중심으로 새롭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주말 중심의 활동운영 체제 구축, 차별화된 콘텐츠를 통한 전문성 확보, 청소년의 요구 반영과 청소년 중심의 운영 체제를 갖추는 것이다. 앞으로 공공-민간의 다양한 자원들이 주말 활동에 제공될 것이며 개방된 경쟁체제에서 수요자의 선택에 따라 청소년활동의 존재 가치와 성과가 입증되기 때문이다.

MEMO

MEMO

MEMO

콜로키움자료집 12-S09

**주5일수업제에 따른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 청소년활동 관점에서 바라 본 주5일수업제**

인 쇄 2012년 4월 13일

발 행 2012년 4월 13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발행인 이 재 연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주)문영사 전화 02)2263-5087 대표 김희자
